

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

온 산의 푸르름이 신록에서 녹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여름의 초입, 때맞추어 모처럼 친구들과 두물머리 세미원(洗美苑)에 놀러 갔다.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觀水洗心)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觀花美心)는 옛글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는 세미원에선 여기저기 연못에 동서양의 가지가지 연꽃이 심어져 있었다. 불가(佛家)에서는 흙탕물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 몸이 깨끗한 것(處染淨身)을 기리고, 유가(儒家)에서는 멀리 있어도 그 향기가 더욱 맑은(香遠益清) 군자의 꽃으로 기림을 받은 품격 높은 꽃이다.

눈을 들어 강 건너 온길산을 바라보면 다산이 자주 들렀다는 수종사가 아스라이 보이고, 두물머리 언저리에 와서 유달리 짙편한 남한강의 그 넉넉하고도 느린 흐름 저편 낮은 산 아래쪽에는 다산의 생가와 묘가 자리 잡고 있다. 이쪽의 경

무엇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가

관은 경제 정선이 화폭으로 남길 만큼 아름답다. 남한강과 북한강, 두 강 사이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어 서로 만나 합치면서 아침에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 운해를 헤치고 나오는 일출이 장관이라고 한다.

이런 경관 속을 거닐면서 조국의 산하는 철 따라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라 되어가는 꼴은 이게 뭐냐는 한탄이 누구의 입에선지 튀어나왔고, 이로부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행 모두가 시무룩해지기 시작했다.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면서 시작된 점심 자리는 어느새 이 나라 정치만 특히, 문재인 정부 성장장으로 변해 갔다.

스스로 정한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배제 기준인 병역기피, 세금탈루, 투기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걸리지 않을 고위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이나 있을까. 그렇다고 그 누구 한 사람 나는 결코 멋진 사람이 못 된다고 스스로 사퇴한 사람이 있었나. 개혁은 높은 도덕성으로만 그 정당성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데도 도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명분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가장 먼저 도마에 올렸다.

처음부터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장 관으로 임명되고 그들이 추진하는 말 많은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성급한 탈원전, 돈 풀어 현금 복지 등 졸속한 데다 어설픔기 짝이 없는 정책들, 거친 세금 씹숨이를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를 국민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런 정부가 과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 문제와 교육 문제, 앞으로 무엇으로 이 나라 이 국민이 먹고살 것인지 등 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풀어 갈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계획이 이루어지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연금이 모두 국민 부담이 자 다음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인 즉, 문재인 케어 등 생색내는 일은 저희들이 하고 부담은 차세대에 넘기는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적외·안보·경제 정책 등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켜 줄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고 지켜 갈 절

학이나 방안이 이 정부에 있는지 등에 대해 원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현충일 날의 난데없는 김원봉 얘기, 노무현 정부 말기 때의 그것을 반복케 하는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의 행보, 그들만의 잔치인 낙하산 인사 등 불평·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 가운데는 영부인이 행사 때 만 발 짝만 대통령의 뒤에 서거나 뒤따라 주는 모습이었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었다. 어쨌든 유쾌하게 출발한 우리들의 나들이는 어느덧 우울하게 끝나고, 오는 길은 침묵 속에 무겁기만 했다.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출발할 때부터 많은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갖고 있었다. 반듯하고 맑은 남자, 겸손하고 선한 인성과 진정성을 지닌 참 관철은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 아니었던가. 대통령이 달라졌는가. 나들이에서 돌아와 2년 전 그의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었다. 역시 감동적인 취임사였다. 그러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드는 의문을, 지금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하고 있는가, 과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웠는가. 그 초심은 지금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

교단에서

절망의 깊이



김진구 일신중 교장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는 인간의 우여곡절한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이 문장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을 만들었고, 주제에 따라 확산하여 적용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이 제각기 다르다' 또는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처럼 말이다.

개인이나 가정의 불행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원인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발생하는 경우와 개인이 실행한 어떤 행위가 가혹한 결과로 나타난 사례를 조심스럽게 꺼내본다.

지난달 진해 해군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식에서 최종근 하사가 숨졌다. 청해부대는 '어덴만 여명 작전'으로 우리에게 생생한 부대이다. 삼호 주 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을 때 피해자 한 명 없이 구출한 영예를 가지고 있다.

이역만리 아덴만에서도, 파고를 넘나드는 긴긴 항해에서도 무사했던 그가 정박용 밧줄에 맞아 순직했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고요하고 날씨는 좋았다. 6개월 임무를 마치고 그의 군 생활도 마무리 정박 단계였다. 자랑스러운 자식을, 든든한 오빠를 맞이하러 갔다. 가족 모두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만남의 기쁨만 남았다. 그런데 이 만남의 순간이 이별의 순간으로 바꿨다. 가족 품에 안긴 대신 구급차에 실려 갔다. 제대를 하고 뜻을 울려 인생의 항해를 시작할 청년이 이렇게 삶의 뜻을 내렸다. 흔하길 운명이라고 하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환영식이 잔재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아버지, 저 한국에 돌아가면 아버지하고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소주 한잔, 아버지는 다 컸다고, 어른스러워지고 의젓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모 든 아버지들은 이 소주 한잔의 대견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잔은 부딪치지 못했고, 영정 앞에 올려졌다.

최종근 하사의 여동생은 "오빠 이거 거 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냐"고 추모 글을 올리면서 "제발 기적처럼 사는 사람들처럼 오빠가 그 기적이 되면 안 되냐"고 몸부림쳤다. 이 상황이 제발 현실이 아니기를,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경험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최하사 가족의 절망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야구 중계방송을 보면서 역전을 간절히 바라거나, 계속 끌려가다가 극적으로 뒤집는 경기를 두고 많이들 하는 말이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지난달 26일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서 삼성이 3-2로 지고 있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끌려가다가 두명의 주자가 어렵게 출루했다. 그 순간 대타로 박한이 선수가 나왔다. 40세 리 그 최고령 선수다. 박한이는 19년 동안 삼성팀 한 곳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기에 '푸른 한이'란 애칭이 있고, FA계약도 싸게 하여 '착한이'라고 했다. 담장까지 날아간 운명의 초구는 3-4 역전의 공이었다. 박한이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번

쩍 들어 포효했다.

그날 밤 지인들과 나는 술, 환호, 자존, 기쁨은 흥건했지만 다음날 오전 8시 6분 음주 운전으로 끝내기 안타는 끝내기 야구 인생이 되었다. 108개의 실밥으로 묶은 140g 야구공을 두고 그는 베트를 내리놓았다. 한국시리즈 신기록 6개, 우승 반지 7개, 영구 결번과 지도자의 길 이 멈췄다.

그의 희혼은 얼마나 깊고 자신을 옥죄는 자책은 얼마나 무거울까. 야구를 보면서 내 스스로 박한이가 되어 딱 한번만 되돌릴 수 있으면 어떻게하는 부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우리 학교에서 날마다 함께 생활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500여 명이다. 학생들은 비슷한 복장으로 등교를 하고, 교직원들은 교육이란 단일 목적으로 출근하기에 겉으로는 별다른 차이 없이 보인다. 그렇지만 사실은 500여 가지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등교하고 출근한다. 지난 밤 잘거웠던 학생도 있고, 민원이 시달린 선생님도 있을 것이다. 등굣길 학생과 출근길 선생님을 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하지만 갈수록 혼화 또는 조인이란 미명으로 섣뚱 말하기가 두려워진다.

자율과 즐기는 축구가 일궈낸 '월드컵 준우승'



장재훈 호남대 축구학과 교수

2019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U-20 대표 선수단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썼고, 세계 축구 역사도 새롭게 장식하였다. 준우승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고, 이강인 선수의 월드컵 골든볼 수상은 혁신이다. 이번 FIFA U-20 월드컵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전 국민을 다시 한 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번 대회의 MVP 이강인 선수는 일곱 살에 다 방송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강인은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아카데미를 거쳐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나 스페인 발렌시아 FC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이강인은 메시에 이어 두번째로 어

린 선수로는 최초로 '2019 FIFA U-20 월드컵 골든볼'을 거머쥐었다. 이제 이강인은 손흥민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들보로 성장했다. 2018-2019 UEFA 챔피언스 리그가 끝난 지 불과 2주 정도 지났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을 결승까지 진출시킨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호하고 행복감을 느꼈다. 두 선수가 자신만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유소년 시절 즐거움과 자율적인 축구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가능성을 발견한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탄생한 것이다. 손흥민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 부친의 개인 레슨을 통해 자율 축구를 접하며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력을 향상시켰고, 득점 기회가 오면 주저함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을 키워왔다. 이강인 선수는 2011년 스페인 유학길에 올라 자유롭게 즐겨온 분위기 속에서 축구를 배우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축구를 키웠다.

필자가 자율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것은 훈련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축구의 지도 방식과 선수 후배를 따지는 축구 문화를 개선 하고자

함이다. 억압하고 강제성을 띤 훈련은 축구를 멀리하게 되고 인지와 사고 능력을 제한한다. 또한 훈련과 시합에서 나이와 학년은 별개의 요인이다. 경기장 안에서는 오직 실력만이 존재한다. "기술 축구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선수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초등학교 축구 감독인 제자가 있다. 6년 전 호남대학교 축구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해운대FC를 창단하여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우승 등 많은 업적을 올렸다.

부산 해운대FC 감독에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냐"고 묻자 감독의 대답은 단호했다. 대학 시절 호남대 축구학과에서 배운 대로 축구를 통해 선수들에게 즐거움을 줬고, 플레이에 대한 선택은 선수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온 게 전부라는 것이다. "즐기는 축구, 자율 축구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뿐만 아니라 '메시'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양성할 수 있다고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았나"며...

2005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호남대 축구학과는 한국 축구의 축구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와 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졸업생들은 부산 해운대FC 감독을 비롯 40여 명이 유소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고, 중·고·대학 지도자들로 오 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이강인, 손흥민 선수보다 더 훌륭한 선수 발굴과 양성에 헌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티모르, 중국 등에서 경기 분석관, 에이전트, 피지컬 코치, 재활 트레이너로 활약하는 등 국내외 축구 산업 전 분야에서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9 FIFA U-20 월드컵'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는 세계 축구 역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력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세계 우수 축구 인프라를 자국으로 모으고 있고,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30년 앞서 우수 유소년 선수 발굴과 양성 등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번 에 우리가 지켜낸 즐기는 자율 축구를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경쟁력으로 승화시킬 것인가이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기 때문이다.

社說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정부 지원 절실하다

여수 묘도에 대규모 LNG(액화천연가스) 탱크와 항만을 조성해 중국·일본 등과의 LNG 무역 거점으로 삼으려는 '전남 LNG 동북아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1년 폐쇄되는 묘도 내 화력 발전소를 LNG 복합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광양항 묘도 준설도 매립장 항만 재개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간 투자자인 (주)한양은 오는 2026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해 묘도를 LNG 동북아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방침 아래 우선 오는 10월까지 국내의 투자사들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여수·광양만권은 석유화학단지과 광양제철 등 LNG 수요처가 밀집해 있고, 해상 물동량도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아 LNG 북빙커링(선박용 연료 주입)과 연관 산업 육성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

가들도 중국과 일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묘도를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구축의 최적지로 꼽고 있다.

대규모 LNG 공급망에서 수소를 추출해 신재생 에너지를 중국·일본 등과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 전남도가 추진하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노후 석탄 발전소의 LNG 전환으로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발전 회사사 등 LNG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터미널 이용 계약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민간 투자자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의 과정에서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는 만큼 산업자원통신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9차 전력 공급 계획에 묘도 LNG 복합 발전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어설픈 경찰, 기강해이인가 업무 미숙인가

광주·전남 지역 일부 경찰들의 허술하고 어설픈 대응이 이곳저곳에서 말썽이 되고 있다. 무차별적인 폭행 현장을 보고도 경찰이 그냥 지나쳤는가 하면 수갑도 없이 범죄자 검거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함평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경찰이 목격하고도 적절할 조치를 하지 않는 내용의 동영상 SNS를 통해 퍼졌다.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B(37) 씨는 이날 낮 12시 49분부터 5분간 C(40) 씨로부터 수차례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는데, 당시 군청 맞은편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러 차량으로 해당 현장을 찾은 사복 경찰관이 그냥 지나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나주에서는 성희롱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시민 도움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를

제압하고도 수갑을 찡기지 않아 현행범을 놓칠 뻔한 일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교대시간에 급하게 출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못 찡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광산 경찰의 한 지구대에서는 '소녀 납치 미수'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고자와 범격 의심자인 신고 대상자를 한자리에서 만나도록 하는 여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지난 3월 화순의 한 지구대에서는 주취 난동 사건 신고자가 조서 내용 수정을 요청하자 경찰이 "직접 조서를 쓰라"며 횡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들을 보면 경찰의 기강이 해이된 것인지 업무가 미숙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한결같이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차체에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자면 책 몇 권은 될 것이다." 흔히 어른들로부터 듣는 얘기다. 해방 전이나 한국전쟁 중에 태어나신 어른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전쟁 등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이런 자신의 발자취를 글로 정리하면 개인의 나이테 이자 나라의 역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출간된 해남 출신 한준식 어른의 '여든아홉이 되어서야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그는 일흔 살 무렵, 기억을 되살려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전쟁터에서 어른신들의 자서전

을 쓴 것이다. 박 할머니는 '백세 시대'에 걸맞게 도전적으로 유투브라는 새로운 영역을 거침없이 자기의 마당으로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책에는 영광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의 힘겨운 '전반전' 인생 이야기와 유투버로 남다른 '후반전'을 사는 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최근 어른신들의 자서전 출판이 활발하다. 본인이 직접 쓴 책도 있지만 손녀나 가족들과 함께한 경우도 많다. 이들의 자서전에는 유명인들의 그것에서 보이는 허장성세가 전혀 없다. 그저 자 삶의 궤적을 진솔

하고 담담하게 남길 뿐이다. 한 전직 대령이 자신의 행동을 감춰 가며 회고록을 쓴 결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어른신들이 자서전을 쓰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광주 서구청 등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아 온 어른신들의 입상은 훌륭한 자서전감이다.

우선 자신의 부모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부터 차근차근 듣고 정리하면 어떨까. /송기호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